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물음** 일기 예보에서 “내일 대체로 맑음.”처럼 ‘-다’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마침표를 찍은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까?

(김영진, 한국 통신 위성 사업단)

**답**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종결 어미 ‘-다’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와 같다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1) 무엇이 어찌한다

- ㄱ. 신속하게 처리할 것.
- ㄴ.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하도록.
- ㄷ. 자, 이제부터 조용히 하기.
- ㄹ. 서울 한때 눈이나 비.

(2) 무엇이 어떠하다

- ㄱ. 내일 대체로 맑음.
- 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듯.
- ㄷ.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좋음.

(3) 무엇이 무엇이다

- ㄱ. 드디어 결전의 날.
- ㄴ. 2000년 서울 출생.
- ㄷ. 일금: 천오백삼십원임.

마침표는 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한 문장의 내용이 끝난 경우라면 마침표를 찍어서 그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위의 예처럼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물음** ‘검정색, 노랑색, 파랑색’이 맞나요,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이 맞나요?  
 (황명숙, 서울 양천구 목동)

**답**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이 맞습니다. ‘검은색’은 ‘검다[黑]’의 관형형 ‘검은’과 ‘색(色)’이 결합하여 형성된 하나의 단어로 ‘숫이나 먹과 같은 색’을 이르는 말입니다. 반면, ‘검정색’은 ‘검은 빛깔이나 물감’을 뜻하는 명사 ‘검정’과 ‘색’이 결합한 말입니다. 그런데 ‘검정’ 자체가 이미 빛깔의 뜻을 포함하고 있고, 단독으로 빛깔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에다 굳이 뜻이 중복되는 ‘색’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은 빛깔’을 뜻하는 말은 ‘검은색’, 또는 ‘검정’이라고 해야 하며 ‘검정색’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노랑색’, ‘파랑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검은색(○)    검정(○)    검정색(×)
- 노란색(○)    노랑(○)    노랑색(×)
- 파란색(○)    파랑(○)    파랑색(×)

**물음** “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위원회는 작년에 창립되었습니다.”의 ‘본회의’, ‘본위원회’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나요?

(조미향, 경남 창원시)

**답** “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 위원회는 작년에 창립되었습니다.”로 써야 합니다. “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었다.”의 ‘본회의’에서 ‘본(本)-’은 ‘가계약’에 상대되는 ‘본계약’, ‘예비고사’에 상대되는 ‘본고사’, ‘보조동사’에 상대되는 ‘본동사’, ‘예비 회답’에 상대되는 ‘본회답’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탕이 되는’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서 뒷말에 붙여 씁니다.

반면 “본 위원회는 작년에 창립되었습니다.”의 ‘본 위원회’에서 ‘본(本)’은 말하는 사람이 직접 관련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본 사건’은 말하는 사람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본 학원’은 말하는 사람이 학원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본(本)’은 관형사이며 뒷말과 띄어 씁니다. 다만, 관형사 ‘본(本)’이 ‘본교, 본국, 본원, 본사’ 등과 같이 자립성이 없는 1음절 한자어와 결합한 경우에는 붙여 씁니다.

(1) 본회의, 본계약, 본고사, 본동사, 본회답

(2) ㄱ. 본 위원회, 본 사건

ㄴ. 본교(本校), 본국(本國), 본원(本院), 본사(本社)

**물음** 건축 공사 현장에서 흙을 파내는 차를 흔히 굴삭기라고도 하고 포크레인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말이 맞는 말인가요?

(석덕호, 경북 영주시)

**답** ‘굴삭기(掘削機)’와 ‘포크레인’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굴착기(掘鑿機)’와 ‘포클레인(poclaim)’이 옳은 말입니다. ‘굴삭기’는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쓰

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포클레인’으로 적어야 합니다.

포클레인은 유압을 이용하여 기계 삼으로 땅을 파내는 차를 말합니다. 같은 명칭으로 ‘삽차’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습니다. 포클레인은 ‘스카치테이프(scotchtape)’나 ‘지프(jeep)’와 같이 원래는 회사명이나 상품명이었는데 널리 쓰이면서 일반명사처럼 굳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포클레인과 굴착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굴착기는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거나, 파낸 것을 처리하는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포클레인을 포함한 넓은 개념의 건설 기계를 통칭합니다.

그러므로 포크레인은 ‘포클레인’이나 ‘삽차’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굴착기’를 쓰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음** “일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결정된다.”라는 문장을 쓰려고 합니다. 이때 ‘작으냐’를 ‘작냐’로 쓸 수는 없습니까?  
(김남두, 충북 청주시)

**답** “일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결정된다.”로 써야 합니다. 어미 ‘-냐’와 ‘-으냐’는 모두 해라할 자리에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선행하는 용언의 형태에 따라 ‘-냐’와 ‘-으냐’가 달리 붙습니다.

- (1) 바다 속은 얼마나 깊으냐? (깊- + -으냐)
- (2) 하늘이 푸르냐? (푸르- + -냐)
- (3) 수박이 다냐? (달- + -냐)

(1)과 같이 받침이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으냐’가 붙고, (2)와 같이 받침이 없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냐’가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런데 (3)의 ‘다냐’는 기본형이 ‘달다’로 받침이 있는 형용사인데 ‘-으냐’가 아닌 ‘-냐’가 연결됩니다.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에는 받침이 없는 경우처럼 ‘-냐’가 붙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 무슨 책을 읽느냐? (읽- + -느냐)
- (5)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가- + -느냐)
- (6) 무엇을 만드느냐? (만들- + -느냐)

(4), (5), (6)은 모두 ‘-느냐’가 연결됩니다. 형용사와 달리 동사의 경우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느냐’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각 어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	받침 있음	-느냐	먹었느냐, 잡느냐
	받침 없음		보느냐, 계시느냐
형용사	받침 있음 (ㄹ 받침 제외)	-으냐	좋으냐, 깊으냐
	받침 없음 (ㄹ 받침 포함)	-냐	예쁘냐, 다냐

따라서 ‘작다’의 ‘작-’은 ‘ㄹ’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이므로 ‘작으냐’로 쓰는 게 맞고, ‘작냐’로 쓰는 것은 틀립니다.

**물음** ‘학꽃길, 굴다릿길’의 로마자 표기는?

(김진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 ‘학꽃길, 굴다릿길’은 ‘Hakgyot-gil, Guldarit-gil’로 적습니다.

로마자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나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학꽃길, 굴다릿길’은 [학꽃길], [굴:따릿길]로 소리 나는데,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Hakgyotgil, Guldaritgil’이 됩니다. 그리고 ‘○○길’은 ‘도, 시, 군’ 등의 행정 구역 단위처럼 ‘길’ 앞에 붙임표를 넣습니다. ‘길’이 정식 행정 구역 단위는 아니지만 ‘가’와 함께 행정 구역 단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붙임표를 넣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로마자 표기법 표기 세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길’과 ‘가’는 붙임표를 앞에 넣어 -gil, -ga로 표기한다. 붙임표 앞 뒤의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은행길 Eunhaeng-gil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 (2) ‘길’ 앞에 사이시옷이 있을 경우는 t로 표기한다.

굴다릿길 Guldarit-gil

그러므로 ‘학꽃길, 굴다릿길’은 ‘Hakgyot-gil, Guldarit-gil’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대학길’, ‘○○우체국길’처럼 고유명사 다음에 ‘길’이 붙는 경우나 외래어 다음에 ‘길’이 붙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유명사나 외래어 표기 다음에 -gil을 붙이면 됩니다.

건국대학길 Konkuk Univ.-gil

관악구청길 Gwanak-gu Office-gil

터미널길 Terminal-gil

월드컵길 World Cup-gil

**물음**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자.”에서 ‘지워 주자’가 맞나요, ‘지어 주자’가 맞나요?

(심형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답** ‘지어 주자’가 맞습니다.

간혹 ‘짝을 지어 주자’의 ‘지어 주자’를 ‘지워 주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짝을 지워 주자’로 쓰려면 ‘짓다’에 ‘-우’가 붙은 ‘지우다’라는 말이 가능해야 하는데 짝을 짓는다는 의미의 ‘지우다’는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결국 ‘짝을 지워 주자’의 ‘지워’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짓다’와 같이 시옷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접미사(-이-, -히-, -리-, -가-, -우- 등)가 붙지 않습니다.

(1) ㄱ. 짓다 : 지어, 지으니, 짓고 ; \*지우다

ㄴ. 젓다 : 저어, 저으니, 젓고 ; \*저우다

ㄷ. 붓다 : 부어, 부으니, 붓고 ; \*부우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짓다, 젓다, 붓다’ 동사들은 ‘\*지우다, \*저우다, \*부우다’라는 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짝을 지워 주자, 컵라면에 물을 부워 주었다’ 등의 ‘지워 주자, 부워 주었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자, 컵라면에 물을 부어 주었다’로 써야 맞는 말입니다.